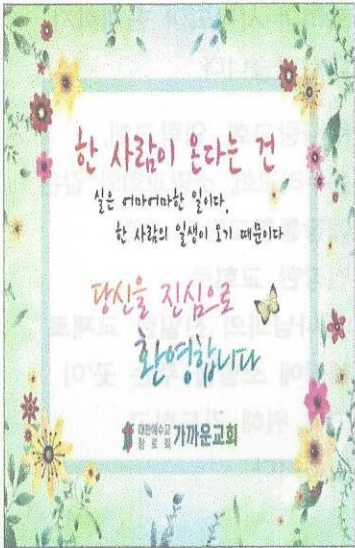


## ☞ 금주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 40:8절)



☆적으나마 기도하고 협력하는 곳  
인도네시아 전영욱 선교사  
인도네시아 김상철 선교사  
독 일 정수길 선교사  
태 국 김경수 선교사  
프 랑 스 이기정 선교사  
러 시 아 성지현 선교사  
천 막 교 회 류미아 목사  
유니세프(Unicef)

## ✽ 교회소식 ✽

1. 환영 : 평생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은 3주 이상 예배 참석후 가능합니다.
2. 추수감사절 :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은 11월 둘째주로 올해는 11.13일 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독창, 듀엣, 중창, 부서 등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성경공부 : 10. 5일(수)부터 저녁 8시부터 시작. 온라인을 위주로 오프라인 모임도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에게 말씀해주세요.

## 기도제목

1. 가까운 교회가 '초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2. 성전건축 Seed Money 전시회가 주님안에서 순적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3.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사권의 기도가 충만하게 하소서.
4. 고3을 위한 기도 : 이종학 박준성

## 예를 봉헌

십일조 : 김혜경 신선울 신선한 정무혁 최은영  
감사헌금 : 김혜경 박여자 윤정인 이강숙 임재민(박새롬) 정무혁  
건축헌금 : 김혜경 유자영 정무혁  
주일헌금: 김기성 김영임 김혜경 박새롬 신선울 신선한 신현관 여용민(이용자)  
유자영 윤정인 이강숙 이래원 이유빈 이윤아 이종학 임재민 정무혁  
조기형 조승현 조유주 채선이 최은영 무명1

2022 - 38  
(제6권)

9월 18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가까운 교회



2022년 표어 : '팀' 과 '다음'  
(엡 2:10-11절)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담임목사 : 신현관  
(mobile.010-6223-9811)

경기도 파주시 동산2길 37 리치빌 2층  
홈페이지 : [www.nearchurch.co.kr](http://www.nearchurch.co.kr)

##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 먼저 뿌리를 보살펴야 한다

박 노 해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려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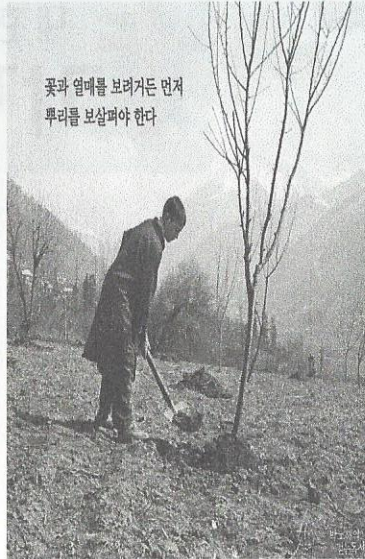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옳음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뿌리를 보살펴야 한다

## 한 가 족 예 배

1부 : 9시 30분 2부 : 오전 11시

### ▶ 경배와 찬양

- ※ 경배와찬양 ----- 다 같 이
- ※ 증보기도 ----- 다 같 이

### ▶ 기도와 고백

- ※ 목회기도 ----- 인 도 자
- ※ 신앙고백 ----- 다 같 이
- 찬 송 ----- 찬442장 ----- 다 같 이
- 기 도 ----- 최은영집사
- 찬 양 ----- 에벤에셀찬양대

### ▶ 말씀과 응답

- 성경봉독 ----- 사 40:6-8절 ----- 인 도 자
- 설 교 ----- 꽃과 말씀 ----- 신현관목사
- 설교후 기도 ----- 설 교 자

- ※ 결단/봉헌 ----- 꽃들도 ----- 다 같 이
- ※ 축 도 ----- 신현관목사
- ※ 송 영 ----- 반 주 자

### ▶ 교제

- 교회소식 ----- 인 도 자
- 축 복 ----- 다 같 이

## 웃가까운교회는

2017년 3. 19일(주)  
'하나님과 가까이, 이웃과 가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 위치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사랑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와 같은  
예장통합교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곳'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日常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곳”

## 다음주 예배 섬김이

기 도: 박새롬 자매  
식탁교제: 이용자 집사